



2025. 7. 30

IBKS Spot Comment

화학/정유

이동욱

02) 6915-5671

treestump@ibks.com

[화학/정유]

EU, 중국/대만/태국 에폭시에 대한 반덤핑 관세 확정

국내 에폭시 수지, 유럽 및 미국 시장 수출 확대 전망

EU는 중국, 대만, 태국에서 수입되는 에폭시 수지에 대해 10.8%에서 33%에 이르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EU 공식 저널에 따르면, 중국은 17.3%에서 33%, 대만은 10.8%에서 11%, 태국은 29.9%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이 관세는 2025년 7월 29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확정 관세는 2025년 2월에 발표된 중국과 태국의 잠정 관세에 비해 약간 낮아졌으나, 대만의 경우 변동이 없다. 확정 반덤핑 관세는 에폭시 함량이 35% 이상인 모든 제품 수입에 적용되며, 특정 페인트/코팅 제품 등은 예외로 지정되었다.

2024년 7월 1일 시작된 유럽연합의 조사에서는 한국산 에폭시 수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조사가 종료되었다. 이에 따라 국도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금호석유화학의 100% 자회사)은 유럽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 기회를 얻게 되었다. 또한, 미국의 반덤핑 조사 결과, 국내 에폭시 수지 업체들은 6~9%(상계관세 포함)의 관세율을 적용 받을 전망이며, 이는 대만과 중국(30~73%) 제품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수출 가격 인상과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가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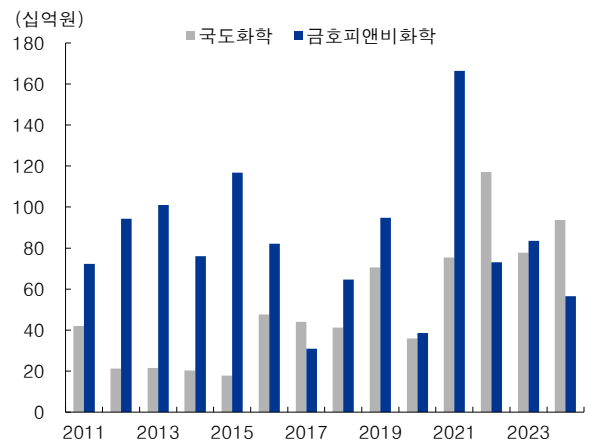
국도화학은 2020년 이후 부산 제2공장, 시화공장, 인도 법인 증설 등으로 투자 지출이 증가했으나, 2025년 2분기 초 인도 법인 증설(투자비 500억 원, 생산능력 +6만톤) 완료 후 가동률을 높이고 있다. 또한, 2026년 중국 Ningbo 법인 증설이 완료되면 추가적인 재무구조 개선이 예상된다. 금호피앤비화학 역시 에폭시 수지 증설과 OCI Kumho(글리세린 공법 ECH 생산)투자를 마무리하며 기존 우수한 재무 건전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그림 1. EU의 중국/태국/대만 에폭시 수지 반덤핑 관세율

Country	Company	Definitive anti-dumping duty (%)
China	Jiangsu Sanmu Group Co., Ltd.	17.3%
China	Sinochem Group: — Jiangsu Ruiheng New Material Technology Co., Ltd. — Nantong Xingchen Synthetic Material Co., Ltd. — Jiangsu Kumho Yangnong Chemical Co., Ltd	33.0%
China	Other cooperating companies	23.0%
China	All other imports originating in China	33.0%
Taiwan	Chang Chun Plastics Co	10.8%
Taiwan	Nan Ya Plastics Corporation	11.0%
Taiwan	All other imports originating in Taiwan	11.0%
Thailand	Aditya Birla Chemicals (Thailand) Limited	29.9%
Thailand	All other imports originating in Thailand	29.9%

자료: European Commission, IBK투자증권

그림 2. 국도화학/금호피앤비화학 Capex 추이



자료: 각사, IBK투자증권

www.ibks.com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추가 움직임을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Compliance Notice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이 없습니다.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